

#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인격적 권리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연구 -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중심으로 -

강준구\*, 김미리\*\*, 탁명자\*, 김치용\*\*\*

\*동의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동주대학교 패션디자인과

\*\*\*동의대학교 ICT공과대학 게임애니메이션공학 전공

e-mail : jkkang1026@gmail.com, mrkim4901@naver.com, kimchee@deu.ac.kr

## A Study on the Personal Rights and Moral Behavio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ed on Detroit Become Human

Jun-Koo Kang\*, Mi-Ri Kim\*\*, Myung-Ja Tak\*, Chee-Yong Kim\*\*\*

\*Graduate School of Digital Media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Dong-Ju College

\*\*\*Major of Game Animation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 요 약

21세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간은 예로부터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에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상상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상해 왔다. 이제 이러한 상상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콘텐츠에서 보여졌던 다양한 문제들이 단순한 상상에서 실재화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에서 현실적인 문제 인식으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해지고 있다. 콘텐츠 속에서 보여지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1. 서론

기술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는 인간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과거부터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이러한 인간과 인간이 만든 존재들이 공존하는 세상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되어져 왔다. 콘텐츠들에서 보이고 있는 미래는 인간과 인공지능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나 반대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다양한 갈등을 겪으며 발생하는 일들을 묘사한 콘텐츠들도 많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단순한 재미적인 요소에서 훌륭한 소재일 뿐이었던 미래의 일로써만 보였었다.

21세기가 되고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과거의 콘텐츠 속 상상 속의 일들이 실재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의 콘텐츠에서는 과장되게 표현되던 요소들은 점점 현실의 모습과 가깝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제 실제로 콘텐츠 속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실재화 될 수 있음을 대비하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 2. 콘텐츠 사례

2018년 5월 프랑스의 개발사인 “Quantic Dream”에서 PlayStation4 플랫폼으로 출시된 “Detroit Become Human”은 가까운 미래를 시간적 배경으로 인간과 고도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들이 공존하는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하는 Interactive Movie 장르의 게임이다.



그림 1.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카라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는 각각 인간들과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안드로이드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콘텐츠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잘 살펴

보면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들이 먼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인간들이 먼저 안드로이드들을 학대하거나 인간과 안드로이드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안드로이드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다. 이에 안드로이드들은 자신들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봉사하고 인간들을 위해 희생하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간들에게 권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이 게임의 주된 내용이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콘텐츠 내부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다. 인간들은 안드로이드들로 장애인에 대한 처우, 육아 및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등 훨씬 높은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안드로이드들이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여 일자리를 잃은 인간들이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들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인간들 대신 위험한 일들에 투입되는 안드로이드 등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높이는 것에 안드로이드들을 희생시키는 모습도 공존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며 똑같이 말하는 안드로이드들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단히 폐기를 결정하거나 학대하는 상황들이다. 부모가 자신들이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의 잣대를 설정하고 행동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창조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런 인공지능들도 인격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도 생긴다.

### 3. 인공지능의 인격에 대한 고찰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고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게 빨라지면서 인공지능이 존재가 현실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격과 권리에 대한 논의성이 필요해 지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새롭게 설정될 것이고 이는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인간이 어떤 판단기준 세울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지위와 도덕적 지위는 물론 독립된 인격으로써 갖추어야 할 행동과 책임에 대한 인정 범위의 설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인공지능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콘텐츠에서와 같이 새로운 인격으로써 인정받게 된다면 기존의 인격 개념을 형성한 인간이 새로운 인격 개념을 부여받은 인공지능에게 어느 기준의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림 2. 콘텐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안드로이드

이러한 윤리적 기준에 대해 이미 인간은 인종 차별, 여성 차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기존의 관념에 따라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현대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의 문제들에 새로운 문제까지 받아들일 준비를 미리 해야 할 것이다.

###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해 연구하였다. 새로운 인격체로써 인공지능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받아들일 인간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인격에 대한 범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반려 동물에 대한 대우가 이전과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이 창조했지만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인정되는 인공지능들에 대해 인간과 똑같은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단순히 인간의 창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간들과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사회적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인간들과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그 새로운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다양한 장치들과 인공지능들의 역할에 대한 범위 등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와 인공지능을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목광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인정에 근거한 모델을 중심으로,” 대한철학회, 철학총론 90, pp. 187-212, 2017.
- [2] 박진호, “인공지능 시대의 대로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법조협회, 법조 66권 3호, pp. 236-285, 2017.
- [3] 송승현, “인공지능과 도덕성,” 법조협회, 법조 67권 6호, pp. 267-341, 2018.
- [4] 천현득, “인공지능에서 인공감정으로,” 한국철학회, 철학 131, pp. 217-243, 2017.
- [5] 강우성, “인공지능시대의 인간중심주의와 타자화,” 한국비교문학학회, 비교문학 제70권, 제0호, pp. 5-34, 2017.
- [6] 신상규,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행위자일 수 있는가,” 한국철학회, 철학 132, pp. 265-292, 2017.